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214호 (2013-44) 발행일 : 2013. 11. 0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가구구성 변화와 소득불평등, 그 정책 함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는 소규모화, 무아동화, 유노인화 경향을 보이고, 소득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비중 확대에 주도되는 가구유형별 구성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가구유형 내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소득재분배 정책과 '분배 지향적 가구구조'를 위한 인구 가족정책의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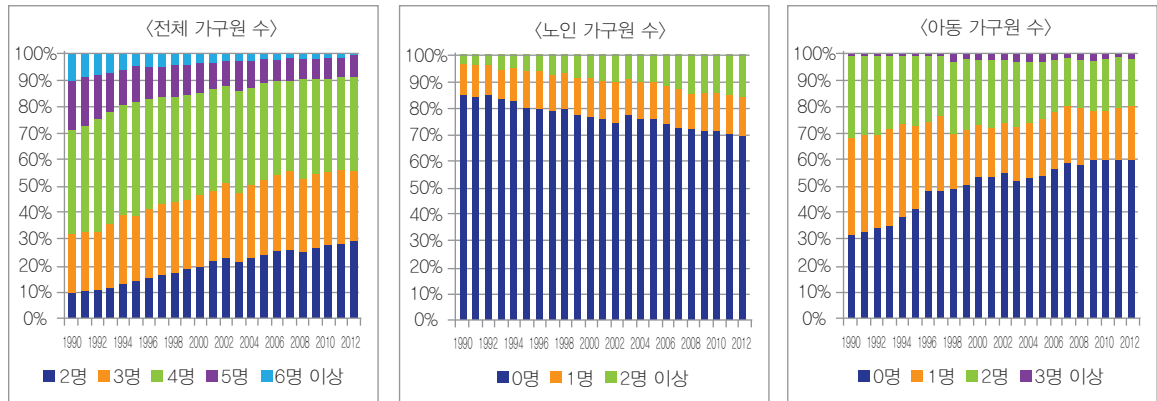
김문길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가구구성의 변화

- 1990년에서 2012년까지 13년 동안 우리나라 가구구성은 노인가구와 아동이 없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구규모가 소규모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
 - 2인 가구는 1990년 10.4%에서 2012년 29.0%로 약 3배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4인 가구는 38.6%에서 35.3%로 감소하였음
 - 노인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85.6%에서 70.4%로 감소했고, 노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2.8%에서 15.4%로 급증하였음
 - 한편, 아동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32.0%에서 59.5%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 표준가구(성인 2인, 아동 2인)의 구성형태였던 아동이 2명 있는 가구는 30.4%에서 18.0%로 감소하였음

* 본 원고는 김문길·김태완·박형준(2012)('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방법을 따라 시계열을 2012년으로 확대하여 재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을 밝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시계열 확보를 위해 2인 이상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림 1] 가구 구성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가구규모 축소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12년 25.3%에서 2035년이면 34.3%로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비율은 같은 20.9%에서 9.8%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1인 혹은 2인의 소규모 노인 가구의 증가가 가구규모 축소 경향을 주로 추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만혼경향도 가구규모 소규모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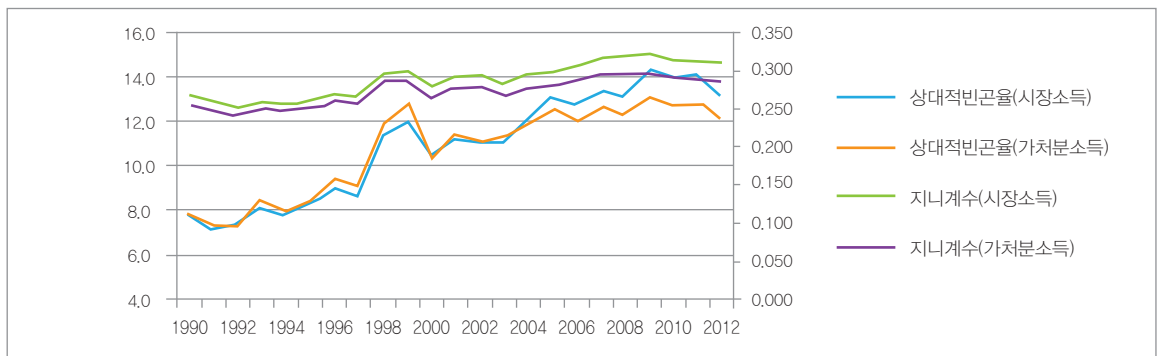
2. 소득불평등의 동향

■ 1990년에서 2009년 까지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있어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990년 7.9%에서 꾸준히 증가, 2009년에 13.2%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에 12.2%로 다소 하락했으나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중임

○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1990년 0.256에서 꾸준히 증가, 2009년에 0.295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2년에 0.285로 다소 하락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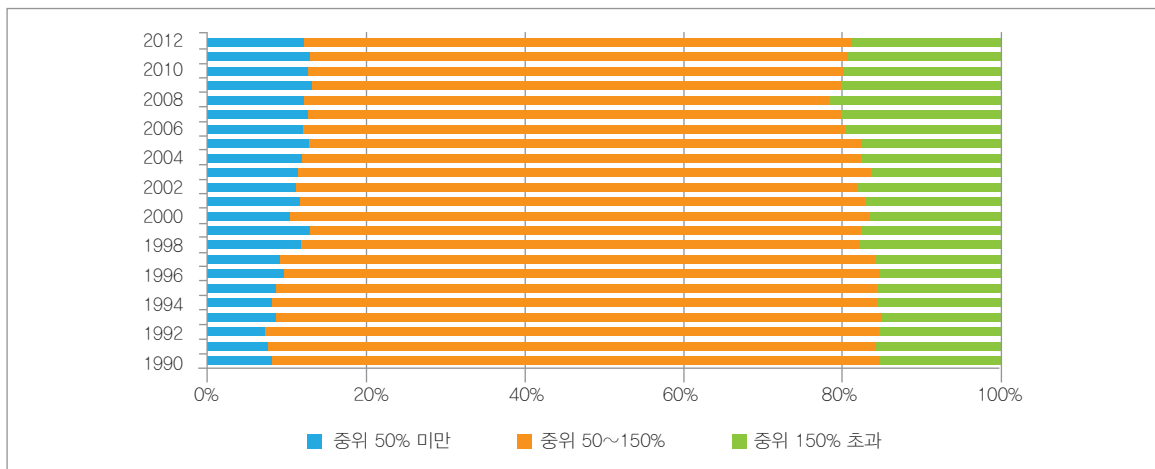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추이



주: 상대적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1990년에서 2009년 까지 부유층도 빈곤층과 비슷한 추이로 확대되면서 중간층 규모가 축소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을 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0년 15.6%에서 2008년 21.8%로 정점에 달한 후 2012년 18.7%로 다소 하락했으나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음
 - 빈곤층과 부유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중위소득 50~150% 사이에 있는 중간층은 1990년 76.5%에서 2012년 69.1%로 7.4%p 감소하였음

[그림 3] 빈곤층, 중간층, 부유층 규모 변화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1990년에서 2012년 까지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임으로써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 먼저, 시장소득 기준 1분위 소득은 1990년 463천원에서 2012년 663천원으로 43.1% 증가한데 그친 반면, 5분위 소득은 1,822천원에서 3,817천원으로 109.4% 증가했음
 -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1분위 소득은 1990년 465천원에서 2012년 743천원으로 59.8%, 5분위 소득은 1,728천원에서 3,476천원으로 101.1% 증가해, 시장소득에 비해서 두 소득집단간 소득증가율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1> 소득분위별 소득 변화 및 증가율

(단위: 천원, %)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1990년	2012년	증가율	1990년	2012년	증가율
1분위	463	663	43.1	465	743	59.8
2분위	722	1,374	90.2	710	1,336	88.1
3분위	912	1,854	103.4	890	1,763	98.1
4분위	1,152	2,416	109.6	1,117	2,264	102.8
5분위	1,822	3,817	109.4	1,728	3,476	101.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3. 가구구성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가중치 조정방법

■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중치 조정방법(re-weighting)이 있음

○ 두 시점간의 실제 불평등지수의 변화가 가구구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불평등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임

○ 성인과 아동의 수를 조합해서 13개의 가구구성의 유형을 설정하고, 이 유형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1990년에서 2012년까지의 소득불평등에 가구구성 변화가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임

- 아래와 같이 기준 시점 대비 최종 시점의 실제 지수(M^{act})의 변화분 대비 최종 시점의 가상적 지수(M^{rew})의 변화분의 크기로 측정됨. 따라서 지수 자체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가 아니라 지수의 변화분에 대한 기여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frac{\Delta^{act} - \Delta^{rew}}{\Delta^{act}} = \frac{M^{act,12} - M^{rew,12}}{M^{act,12} - M^{act,90}}$$

- 만일, 2012년의 가중치 조정된 불평등지수가 2012년의 실제 지수와 같으면 위는 0이 되며, 이는 가구구성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2012년의 가중치 조정된 불평등지수가 1990년의 불평등지수와 같다면 위는 1이 되어 가구구성의 변화가 불평등지수 변화를 전적으로 설명하게 된다는 의미임

■ 가구구성 유형(k)별 비중과 그 변화는 아래 <표 2>와 같음

○ 전체 구성비가 큰 유형(10% 이상)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성인 2인으로만 구성되는 가구(유형4)로 18.0%p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성인 3명으로만 구성되는 가구(유형8)로 10.2%p 증가하였음

○ 반대로 가장 크게 감소한 유형은 성인 3인 이상, 아동 1인으로 구성되는 가구(유형9)로 10.9%p 감소했고, 다음으로 성인 2인, 아동 2인으로 구성되는 가구(유형6)가 4.7%p 감소하였음

<표 2> 가구유형별 비중 및 변화: 1990~2012년

(단위: %, %p, 천원)

유형 (k)	성인	아동	비중 ('90)(A)	비중 ('12)(B)	B-A	유형 (k)	성인	아동	비중 ('90)(A)	비중 ('12)(B)	B-A
1	1	1	0.6	1.0	0.5	8	3	0	6.9	17.1	10.2
2	1	2	0.7	0.9	0.2	9	≥3	1	21.4	10.5	-10.9
3	1	≥3	0.0	0.2	0.2	10	≥3	2	10.9	3.0	-7.8
4	2	0	9.9	27.9	18.0	11	≥3	≥3	0.6	0.2	-0.4
5	2	1	14.5	8.6	-5.9	12	4	0	7.9	13.1	5.3
6	2	2	18.8	14.1	-4.7	13	≥5	0	7.4	1.8	-5.6
7	2	≥3	0.5	1.5	1.0	전체	-	-	100.0	100.0	0.0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가중치 조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빈곤율 및 불평등지수의 변화분은 빈곤율과 불평등지수별, 그리고 기준 소득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빈곤율) 실제 변화는 67.7%, 가중치 조정에 의한 변화는 21.1%로 가구구조 변화가 빈곤율 변화의 68.9%를 설명.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빈곤율) 54.1%를 설명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실제 변화는 16.5%, 가중치 조정에 의한 변화는 7.2%로 가구구조 변화가 지니계수 변화의 56.1%를 설명.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65.6%를 설명
 - * OECD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의 88.2%를 설명(OECD, 2008, Growing Unequal? p.66), 독일의 경우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의 12.8%를 설명(Peichl et al., 2010, "Size Matters: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on Income Distribution in Germany" p.19)
 - (시장소득 기준 일반화 엔트로피지수(GE(0))) 실제 변화는 75.0%, 가중치 조정에 의한 변화는 36.5%로 가구구조 변화가 GE(0) 변화의 51.3%를 설명. (가처분소득 기준 GE(0)) 65.5%를 설명
 - (시장소득 기준 일반화 엔트로피지수(GE(1))) 실제 변화는 31.8%, 가중치 조정에 의한 변화는 11.4%로 가구구조 변화가 GE(1) 변화의 64.3%를 설명. (가처분소득 기준 GE(1)) 82.5%를 설명

〈표 3〉 가중치 조정에 의한 빈곤·불평등지수 변화의 효과(변화율) (단위: %)

지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Δ^{act}	Δ^{rew}	$\frac{\Delta^{act} - \Delta^{rew}}{\Delta^{act}}$	Δ^{act}	Δ^{rew}	$\frac{\Delta^{act} - \Delta^{rew}}{\Delta^{act}}$
빈곤율	67.7	21.1	68.9	54.0	24.8	54.1
I_{Gini}	16.5	7.2	56.1	11.2	3.8	65.6
$I_{GE(0)}$	75.0	36.5	51.3	32.5	11.2	65.5
$I_{GE(1)}$	31.8	11.4	64.3	19.9	3.5	82.5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4. 가구구성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엔트로피 분해방법

- 소득불평등지수를 인구 하위 집단별로 분해하는 방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 인구 하위 집단별 분해에 적합한 일반화 엔트로피(GE(θ))지수를 선택
 - GE지수를 집단 내(within) 불평등과 집단 간(between) 불평등으로 분해해서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집단 내 불평등은 다시 불평등 변화 효과(A)와 인구구성 변화가 집단 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B)로 분해, 집단 내 불평등은 다시 인구구성 변화가 집단 간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C)와 인구 하위집단 평균소득의 변화의 효과(D)로 분해

■ 가구유형별 불평등지수의 변화는 아래 <표 4>와 같음

- 구성비가 10% 이상인 유형(음영표시) 중 전체 지수보다 높은 유형은 지니계수와 GE(0)지수 모두 유형4와 유형8임
 - 두 유형 모두 아동이 없는 성인들로만 구성된 가구라는 공통점이 있음. 이는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이들 가구유형의 불평등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줌

■ 불평등지수의 분해를 통해 인구 하위집단 내 - 하위집단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시장소득 기준) 1990년 GE(0)지수 0.122는 약 96%가 인구 하위집단 내의 불평등에 의해, 나머지 약 4%는 인구 하위집단 간의 불평등에 의해서 각각 설명

<표 4> 가구유형별 불평등지수 변화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GE(0)		지니계수		GE(0)	
k	성인	아동	1990	2012	1990	2012	1990	2012	1990	2012
1	1	1	0.371	0.365	0.237	0.504	0.365	0.346	0.228	0.235
2	1	2	0.343	0.330	0.256	0.194	0.342	0.304	0.246	0.160
3	1	≥3	0.667	0.257	1.307	0.156	0.622	0.259	0.956	0.148
4	2	0	0.321	0.447	0.200	0.448	0.305	0.379	0.173	0.267
5	2	1	0.234	0.284	0.095	0.170	0.229	0.267	0.092	0.128
6	2	2	0.233	0.242	0.093	0.121	0.227	0.231	0.089	0.093
7	2	≥3	0.232	0.260	0.083	0.122	0.225	0.249	0.078	0.126
8	3	0	0.310	0.326	0.174	0.231	0.292	0.302	0.150	0.165
9	≥3	1	0.258	0.273	0.112	0.140	0.250	0.257	0.106	0.110
10	≥3	2	0.255	0.258	0.107	0.115	0.245	0.240	0.097	0.103
11	≥3	≥3	0.288	0.414	0.137	0.376	0.279	0.401	0.128	0.355
12	4	0	0.284	0.246	0.141	0.127	0.264	0.233	0.123	0.093
13	≥5	0	0.257	0.298	0.112	0.192	0.242	0.272	0.100	0.133
전체			0.266	0.310	0.122	0.214	0.256	0.285	0.112	0.149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음영은 구성비가 10% 이상인 집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2012년의 경우는 약 97%가 인구 하위집단 내의 불평등에 의해, 나머지 약 3%는 인구 하위집단 간의 불평등에 의해 설명. 즉, 집단 내의 불평등에 의한 영향력이 약간 커졌음
- 2012년 가상적 인구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는 약 98%가 집단 내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의 경우보다 큰 영향력을 보임
- 결국 가구구조 변화가 없었다면 전체 불평등도는 실제보다 낮았을 것이고, 집단 내 불평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더욱 커졌을 것임을 의미함

〈표 5〉 집단 내 불평등, 집단 간 불평등의 분해결과

(단위: %)

구분		전체	집단 내	(비중)	집단간	(비중)
시장 소득	GE(0) 1990 act	0.122	0.117	95.9	0.005	4.1
	GE(0) 2012 act	0.214	0.207	96.5	0.007	3.5
	GE(0) 2012 rew	0.167	0.163	97.6	0.004	2.4
가처분 소득	GE(0) 1990 act	0.112	0.107	95.6	0.005	4.4
	GE(0) 2012 act	0.149	0.144	96.6	0.005	3.4
	GE(0) 2012 rew	0.125	0.122	97.4	0.003	2.6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 불평등지수의 2차 분해를 통해 인구구성의 변화가 총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총 불평등 변화에서 인구구성 변화가 인구 하위집단 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B)와 인구 하위집단 간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C)를 더한 비율로 측정됨

○ 시장소득의 경우 인구구성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집단은 유형1,4,7,8이며, 가처분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다만, 유형7을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에서 영향력이 더욱 큼

○ (종합)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유형4,8)와 2인 가구(유형1)의 비중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확대시켰고, 반면, 아동이 있는 4인 이상 대규모 가구(유형 9,10)의 비중 감소는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음

〈표 6〉 인구하위 집단 별 불평등 분해 결과: 1990~2012년

(단위: %)

집단 (k)	성인	아동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A_k	B_k	C_k	D_k	$\frac{B_k + C_k}{\Delta I_0}$	A_k	B_k	C_k	D_k	$\frac{B_k + C_k}{\Delta I_0}$
1	1	1	0.1	0.1	0.4	-0.1	1.8	0.0	0.1	0.3	-0.1	58.1
2	1	2	0.0	0.1	0.3	-0.4	-5.9	-0.1	0.1	0.3	-0.4	-4.3
3	1	≥3	-0.2	0.2	0.3	-0.1	-0.4	-0.1	0.1	0.3	-0.1	-0.5
4	2	0	2.7	3.8	12.0	-3.6	63.5	1.0	2.7	12.1	-2.3	157.3
5	2	1	0.7	-0.4	-3.0	-0.5	-44.9	0.3	-0.3	-2.9	-0.7	-90.5
6	2	2	0.5	-0.2	-1.5	-1.3	-59.9	0.1	-0.1	-1.6	-2.0	-442.1
7	2	≥3	0.1	0.2	1.8	-0.7	49.7	0.1	0.2	1.8	-0.7	40.3
8	3	0	0.6	2.1	10.6	2.0	222.8	0.2	1.7	10.7	2.3	796.2
9	≥3	1	0.5	-1.4	-11.0	0.3	-447.1	0.1	-1.2	-11.1	0.0	-3015.1
10	≥3	2	0.1	-1.1	-10.3	-1.4	-1402.6	0.1	-1.0	-10.3	-1.5	-2017.3
11	≥3	≥3	0.2	-0.2	-0.6	-0.1	-3.3	0.2	-0.1	-0.6	-0.1	-3.5
12	4	0	-0.2	1.1	8.4	3.9	-667.4	-0.4	0.9	8.4	3.6	-306.4
13	≥5	0	0.5	-1.	-7.1	2.1	-101.9	0.2	-0.8	-7.1	2.0	-245.5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5. 정책 함의

- 인구고령화와 사회 · 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한 가구구성의 변화는 소득분배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비중 확대로 주도되는 가구유형별 구성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가구유형 내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할 수 있음
- 이는 조세-이전을 통한 사후적 · 직접적 소득분배 정책과 인구 및 가족정책과 같은 여타의 사회정책이 병행될 필요성을 시사함
 - (소득재분배 정책의 관점) 전체 소득불평등도가 가구유형 내 소득불평등도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는 점에서 구성비의 변화가 큰 유형의 가구들 내의 소득분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아동이 없는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결국 소규모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에 따른 비수급 빈곤노인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의 내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 (인구 및 가족정책) 대상 가구들 내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더불어 이른바 ‘분배지향적 가구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정책이 필요함
 - 첫째,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함.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소위 ‘저출산 인지적’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비중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대규모 가구의 비중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가구규모 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화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과 소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룹홈’과 같은 대안적 가족제도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 본 고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1인 가구를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만약 1인 가구가 포함되었다면 1인 가구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는 소득불평등도 측정에 있어서 가구균등화 소득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¹⁾. 독일의 경우 1인 가구 확대가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는 연구결과(Peichl et al., 2010)를 참조

1) 다수의 가구원이 동일한 소득을 공유하는 가구가 많은 사회와 1명의 가구원이 하나의 소득을 가지는 1인 가구가 많은 사회를 비교해 보면, 전자에서 보다 균등한 소득분배가 일어남. 이는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가구균등화 지수가 가구 내 규모의 경계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집필자 | 김문길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354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